

“즐겁게 레이스 하겠다”



수영국가대표 박태환(27)이 '먼 길을 돌아' 브라질에 도착해서 드러낸 목표는 “즐거운 레이스를 하고 싶다”였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나서는 박태환은 미국에서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2주 정도 마무리 훈련을 하고 31일 늦은 오후(이하 한국시간) 결전지 리우에 입성했다.

올랜도에서 브라질 상파울루를 거쳐 리우로 들어온 박태환은 “1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탔는데 나를 편하게 왔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에서 마무리 훈련을 잘 했다. 아픈 데도 없고 탈 난 곳도 없다”고 몸 상태를 전한 박태환은 “컨디션은 계속해서 경기하다 보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태환은 힘들게 리우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를 당했던 박태환은 징계가 풀린 이후에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맞춰 올림픽 출전이 무산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7일 밤 10시 400m 결승

3회 연속 올림픽 메달 도전

“메달 압박감 없이 편하게”

될 뻔했다.

하지만 국내 법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도 판단을 구하는 힘겨운 싸움 끝에 대회 개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7월 8일에서야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받고 리우올림픽 출전을 확정 지었다.

박태환은 “4년 전 런던올림픽 때와는 상황이 다른데 마음 편하게 하려고 한다”면서 “순위에 대한 압박감 없이 편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100m·200m·400m·1,500m 네 종목에 출전한다. 경영 종목 첫날 경기가 열리는

8월 7일에는 자신의 주 종목인 자유형 400m에 나서 3회 연속 올림픽 메달 획득과 함께 약물 파문으로 실추된 명예회복에도 도전한다. 박태환은 자유형 400m에서 2008년 베이징 대회 때 금메달을 따고, 2012년 런던 대회 때는 예선에서 실격 반복 파동을 딛고 은메달을 수확했다.

그는 “400m에 대해 많은 분이 기대를 해주는데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즐겁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경영 종목 예선은 현지시간 오후 1시, 결승은 오후 10시에 시작한다. 일반적인 국제대회와는 각각 3~4시간 정도 늦게 시작해 컨디션 조절이 어느 대회보다 중요해졌다.

“미국에서 훈련할 때와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박태환은 “즐거운 레이스를 하고 싶다. 기분이 나쁠 상태는 나쁘지 않다. 남은 기간 컨디션을 끌어올려 기분 좋은 레이스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국민들에게 희망 주겠다”



올림픽 축구대표팀 손흥민(24·토트넘)이 1일(한국시간) 브라질 사우바도르에 입성했다. 그는 “한국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겠다”라며 다부진 각오를 드러냈다.

손흥민은 사우바도르 데푸타도 루이스 에두아르도 마갈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속팀 토트넘의 프리 시즌 경기를 치르면서도 올림픽에 관한 생각을 많이 했다”라며 “약 36시간 정도를 이동했는데, 비행기에서 2년 전 월드컵 때 기억이 떠올랐다”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한국 대표팀으로 참가했지만 손맛을 봤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H조 조별리그에서 1무 2패로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손흥민은 “2년 전 월드컵과는 다른 느낌이 든다. 잠을 조금 설치기도 했는데, 이제 실감이 난다”라며 브라질 입성 소감을 밝혔다.

그는 2년 전 브라질 월드컵을 곱씹었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2년 전 월드컵과 다른 느낌”

팀내 위치 바뀌고 많이 성장”

5일 오전 8시 피지와 첫 경기

그는 “2년 전 많은 것을 느꼈다”라며 “비행기 안에서 월드컵 때 생각이 많이 났는데, 특히 벨기에전에서 눈물을 흘린 게 생각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브라질 월드컵 이후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더 잘 준비해 리우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브라질 월드컵을 후배급으로 참가했지만, 리우 올림픽에서는 위치가 바뀌었다. 그는 리우 올림픽에서 동생 선수들을 챙겨야 하는 형 역할을 해야 한다.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과 한두 살 차이

라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며 “처음 보는 선수들이 많아 어색할 것 같지만, 빨리 적응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프리시즌 경기를 치렀던)호주에선 시차 때문에 (스웨덴과 친선경기를) 생방송으로 보진 못했다”라며 “늦게 합류해 죄송한 마음이 큰데, 빨리 준비를 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런던 올림픽처럼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부담이었던 것 같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한국 시간으로 아침 이른 시간에 경기를 치르지만, 많은 분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했다.

그는 곧바로 올림픽 축구대표팀 숙소로 이동했다.

올림픽 대표팀은 5일 오전 8시 사우바도르 폰테 노바 아레나에서 피지와 첫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볼트 후반 가속도는 착시...감속 적을 뿐

마지막 20m 0.03초 느려져 경쟁자 0.05초...급격히 감소 100m 주파 걸음도 41보 평균보다 적어 피로 탈해

“레이스 후반부, 볼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번엔 볼트를 꺾을 수 있겠다 싶은 순간, 볼트의 등짝이 보이고 나에겐 결승선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볼트가 양손을 번쩍 치켜드는 모습이 보인다”

남자 육상 100m에서 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31)에 도전했던 세계적 선수들이 털어놓는 공통된 경험담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일 소개했다.

나이 갖지 않은 번속 장치를 하나 더 갖춘 듯, 경주 후반부에 가속도가 붙어 치고 나가는 볼트의 모습은 그러나 우리 눈의 착시 현상이다.

실제로 볼트도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후반부에 속도가 떨어진다.

출발선으로부터 70m 지점에서 시속 약 43.2km로 최고 속도에 이른 뒤엔 볼트의 속도도 떨어진다. 볼트와 후반부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 속도가 더 적게 느려지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간동역학지(JHK)가 지난 2009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100m 기록을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를 인용, 마지막 20m 구간에서 볼트와 다른 선수들의 감속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보여줬다.

볼트는 9.58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이 경기에서 출발부터 첫 20m까지 2.88초 걸린 데 이어 이후 20m마다 1.75, 1.66, 1.63초로 가속하다가 마지막 20m에선 1.66초로 감속했다. 최고 정점에 비해 0.03초 느린 것이다.

다른 선수들도 같은 패턴이지만, 마지막

20m 구간을 주파한 시간이 1.70초에서 1.75초로 감속해 0.05초 느려졌다. 5개 모든 구간에서 볼트의 속력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 빨랐지만, 특히 모든 선수가 힘이 급격히 빠지는 마지막 구간에서 감속폭 차이가 눈에 띈다는 것이다.

운동과학 연구 결과 근육 피로가 달리기 시작 즉시 시작돼 근육 수축 때마다 축적된다는 사실도 다른 선수들이 볼트를 공략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말했다.

볼트는 경쟁 주자들에게 비해 키가 크면서, 발을 빨리 돌리는 보수(步數)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적다. 더 적은 걸음으로 더 멀리 갈 수 있어서 100m를 다른 선수들은 평균 약 45보에 주파하는 데 비해 볼트는 41보만 충분하다. 한번 내디딜 때마다 근육의 힘이 약해진다면, 볼트의 근육은 다른 선수들보다 피로도가 덜 한 셈이다. 마치

막 20m 구간에서 볼트의 감속 폭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다른 선수들도 보폭을 넓혀 보수를 줄이면 볼트를 이길 수 있을까? 이 신문은 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단거리 전력 질주할 때는 보폭과 보수 간 균형이 중요하며, 주자의 무게중심을 지나치게 벗어나도록 발을 멀리 내디디면 오히려 나아가는 추진력을 잃게 된다.

신문은 볼트와 이번에도 육상 남자 100m, 200m, 400m 계주에서 3관왕에 오르면서 3번의 올림픽에서 3관왕에 오르는, 올림픽 사상 전무한 대기록인 ‘트리플-트리플’을 노리고 있는 점을 지적, 이 목표에 한눈을 팔지 않고 자신이 달리는 주로에만 집중해 성공한다면 “육상 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女골프 ‘쭈타누간 경계령’

브리티시오픈 우승...‘괴력의 장타력’으로 올림픽 금 조준

‘쭈타누간을 넘어야 금메달이 보인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 여자 골프 대표팀에 또 하나 버거운 장애물이 등장했다.

태국 국기를 달고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는 에리아 쭈타누간(20)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네번째 메이저대회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뒤 “이제 브라질로 가서 또 한번 큰 대회를 치른다”고 말했다.

다음 목표가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뜻이다. 진작에 그는 리우 올림픽에서 조국에 금메달을 안기고 싶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쭈타누간이 이번 대회에서 보인 경기력은 올림픽 금메달 후보로 손색이 없다. 무엇보다 괴력의 장타력이 돋보인다. 아예 드라이버를 빼고 경기에 나서고도 파4홀과 파5홀 평균 티샷 거리가 250야드에 이르렀다. 3라운드에서는 평균 269야드까지 나왔다. 3번 우드보다는 2번 아이언을 더

자주 잡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엄청난 장타력이다.

정확도가 높은 3번 우드나 2번 아이언을 잡는 덕에 페어웨이 안착률은 78.6%나 됐다. 장타자의 숙명인 티샷 불안에서 해방됐다. 아이언샷 정확도도 덩달아 높아졌다. 중장거리 버디 퍼트 뿐 아니라 압박감이 높은 3m 안팎의 파퍼트도 거의 놓치지 않았다.

장타력과 정교해진 샷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달리진 정신력이다.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쭈타누간은 장타력을 앞세워 우승 기회를 여러번 맛았지만 막판에 무너지곤 했다. 지난 4월 시즌 첫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 최종 라운드에서는 3개홀을 남기고 2타 선두였지만 실수를 연발해 준우승까지 놓쳤다. 하지만 5월 요코하마 타이어 클래식에서 첫 우승 물꼬를 트고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이루면서 ‘새가슴’은 강철 심장으로 바뀌었다.

/연합뉴스

화재·교통사고 리햐 강도 무서워요

취재진 버스 추돌사고...경기장 안전사고 빈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해 불안감을 낳고 있다. 지난 31일(현지시간)에는 전 세계 취재진을 실어나르는 셔틀버스가 뒤차에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탑승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출발한 셔틀버스가 숙소로 이동 중 뒤따르던 다른 버스에 추돌당했다. 충돌 순간 “굉”하는 소리와 함께 셔틀버스 뒤편 전면 유리가 박살이 났다. 버스 안에는 각 나라에서 온 취재진으로 꽉 차 있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다. 그러나 사고 후 버스 운전기사는 탑승객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뒷면 유리 없이 그대로 운행을 해서 원성을 샀다.

지난 30일에는 선수촌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호주 대표팀 선수단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선수촌 건물 계단이 연기로 휩싸이면서 선수단 등 100여 명이 긴급하게 몸을 피해야만 했다.

대피 소동 속에 호주 선수단 숙소에는 노트북과 개인 의류 등이 도난당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선수들이 화재 진압 후 숙소로 복귀했는데, 일부 선수들의 개인 물품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다. 그러나 사고 후 버스 운전기사는 탑승객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뒷면 유리 없이 그대로 운행을 해서 원성을 샀다.

/연합뉴스

日 여자 마라토너 이토 마이, 코스 답사 포기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는 일본 여자 마라토너 이토 마이(32)가 치안 문제로 마라톤 코스 답사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토는 31일 전지훈련지인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답사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마라톤에서 코스 답사는 매우 중요하다. 경사로 등을 파악해 체력을 어떻게 안배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승부수를 띄울 시점을 결정하는 등 작전을 짜기 위해선 필수적이다.

일본 여자 마라톤 고도 감독은 “지난해 말 리우 올림픽 마라톤 코스를 예비 조사했을 때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자전거로 코스를 돌았는데,

해당 지역이 우범 지대인지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초치는 “리우 올림픽의 마라톤 코스 인근 지역은 치안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곳”이라며 “리우 일본 총영사관도 해당 지역에 관해 강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 지구로 지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고도 감독은 “이토는 경기 후반 주파 능력이 좋은 선수라 코스 답사는 매우 중요인데,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토는 “강도를 당할 경우 어쩔 수 없다”라며 “총알을 피할 수 있는 민첩성은 없다. 달려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